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오인(誤認)보도에 대한 결의안

최근 동작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타당성조사 완료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보다 낮은 동작구가 2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 ‘호화청사’를 짓는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일례(一例)로 2010년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용산구청과 비교하며 용산구청보다 3백억원이 많고 또한, 평균 수백억원이 드는 구청 신축사업비보다 2배이상 많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동작구의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명백한 오인(誤認) 보도이다.

동작구청 청사는 1980년 4월 1일 개청한 이래 약 36년째 현 청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2015년 9월 구 청사의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물에 결함이 생겨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았으며 사용제한 여부까지도 결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이에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은 약 1,809억원이 소요되며, 시지원금 최대 436억원과 기금 150억원, 구 청사 매각대금 약 1,790억원을 합해 총 2,376억원으로 충당하는바, 약 567억원의 예산상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다.

동작구는 전 지역이 역세권 등 상권형성이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업기능지역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전체 상업지역 중 약 50% 정도가 노량진역세권에 밀집되어 있고, 이중 절반은 구청·경찰서·대형학원 등이 점유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여건이다 보니 재정여건도 어려워 올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30%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작구 청사는 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노량진역세권의 상업용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구청사 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송파와 종로에 이어 3위에 이를 정도로 비싼 땅을 구청사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작구의 중심지에 위치한 장승배기 일대는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지역발전에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구민의 지역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는 동작구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구는 장승배기 영도시장 일대를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해 분산된 공공기관을 한 곳에 모아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사가 이전한 노량진역세권의 상업지역 부지에는 상권 활성화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노량진과 장승배기 지역의 동반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작구의 종합행정타운은 단순히 신청사를 짓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앞장서 상업기능지역 비율을 늘려 소비창출, 일자리창출,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경제구조”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흠집을 내는 일부 언론의 오인(誤認)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금치 못하며, 동작구를 사랑하는 구민과 함께 염원(念願)의 합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동작구는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동작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발전의 견인 사업으로 꼭 추진해야하는 사업인 만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1. 구청사, 의회, 보건소 등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준면적보다 적은 최소면적으로 지으며, 조달청 평균 공사비로 계획한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호화청사’를 짓는다는 일부 언론은 오인(誤認)보도를 중단하라.

1. 현 구청사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낭비라는 일부 보도는 사리(事理)에 맞지 않는 말로 보도를 중단하라.

2016. 4. 25.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